

제5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73,290,098,185	I. 유 동 부 채	10,191,976,857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6,659,750,817	(1) 매입채무 및 기타 지급채무	8,165,057,989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6,659,750,817	1. 매입채무	2,516,755,977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201,000,000	2. 미지급금	3,800,864,878
1. 단기매매증권	3,201,000,000	3. 미지급비	1,847,437,134
(3) 매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	21,290,850,019	(2) 차입부채	731,960,000
1. 매출채권	21,309,772,780	1. 단기차입부채	0
2. 미수충당금	(483,106,327)	2. 유동성장기부채	731,960,000
3. 미수당금	477,654,214	(3) 기타 유동부채	1,294,958,868
4. 당기대손충당금	(97,329,645)	1. 선수수익금	58,444,887
5. 당기대손충당금	83,858,997	2. 예수금	1,222,272,881
6. 당기대손충당금	600,000,000	3. 미지급배당금	14,241,190
7. 당기대손충당금	(600,000,000)		
(4) 재고자산	11,741,199,661		
1. 상품	1,781,033,870		
2. 재품	5,011,956,594		
3. 공가충당금	2,794,043,841		
4. 원재료	(67,091,631)		
5. 부품	1,371,786,018		
6. 원재료	200,691,542		
7. 저자산	220,533,041		
8. 미확장품	33,460,666		
9. 미확장품	394,785,720		
(5) 기타 유동자산	397,297,688		
1. 선금	375,013,460		
2. 선비	22,284,228		
II. 비 유 동 자 산	43,385,629,092		
(1) 장기금융자산	4,087,865,292		
1. 장기금융자산	3,000,000		
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3,367,330,000		
3. 보충	717,535,292		
(2) 투자부동산	11,667,368,186		
1. 투자부동산	11,863,734,314		
	(196,366,128)		
(3) 유형자산	20,661,768,367		
1. 건물	11,219,948,000		
2. 건물가상누계액	12,371,700,220		
3. 건물가상누계액	(7,487,255,525)		
4. 건물가상누계액	353,743,241		
5. 건물가상누계액	(308,515,543)		
6. 건물가상누계액	10,247,281,113		
7. 건물가상누계액	(6,751,956,808)		
8. 건물가상누계액	173,828,049		
9. 건물가상누계액	(102,708,607)		
10. 건물가상누계액	2,702,534,283		
11. 건물가상누계액	(2,097,135,736)		
12. 건물가상누계액	340,305,680		
(4) 무형자산	2,672,785,832		
1. 영업권	160,028,643		
2. 회계재원	1,092,897,337		
3. 개발비	186,540,857		
4. 기타	1,233,318,995		
(5) 이연법인세자산	202,073,851		
1. 이연법인세자산	202,073,851		
(6) 기타 비유동자산	4,093,767,564		
1. 장기유선금	1,238,644,552		
2. 장기대여금	2,947,404,453		
3. 기타 손투자	(124,987,977)		
	32,706,536		
자 산 총 계	116,675,727,27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6,675,727,277
		부 채	10,191,976,857
		자 본	106,483,750,420
		자 본 총 계	93,195,946,40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6,675,727,277

上記와 같이 공표함.

2013년 03월 29일



근화제약주식회사

代表理事 페터 카일(Peter Keil)



감사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57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